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②

제19대 국회 평가

-입법활동 종합평가편(2) -

2015. 11.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I 들어가는 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9월 「제19대 국회평가단」을 발족하고 제19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회의를 시작했다. 첫 번째 평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제1편 「입법활동 종합평가(1)」는 제19대 국회법안처리현황, 법안발의 형태별, 정당별, 선수 및 선출방식별, 의원개인별,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는 바른사회 ‘19대 국회평가단’ 두 번째 평가 분야인 「입법활동 종합평가(2):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에 대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II 본론

1. 제19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2012년 5월,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현재(2015. 9. 30)까지 151회의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151회의 본회의를 분석할 결과, 평균 재석의원은 298.3명이며 평균 출석의원은 265.6명으로 출석률 89%를 보였다(【표 1】 참조).

【표 1】 제19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2015.9.30. 기준)

구분	본회의 평균재석의원 수	평균 출석(89%)	결석		
			소계 (11%)	무단결석 (6.7%)	청가 및 출장 (4.3%)
평균	298.3명	265.6명	32.8명	20명	12.8명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한편 본회 개최 시와 산회 시 재석비율은 차이를 보였다. 본회의 개최 시 평균 재석률은 67.5%였고, 산회 시 재석률은 42.5%였다(【표 2】 참조). 즉, 본회의가 시작할 즈음에는 다수 참석했다가 회의가 끝날 즈음에는 출석의원의 절반 이상이 본회의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표 2】 제19대 국회 본회의 개최 및 산회 시 재석률

(2015.9.30. 기준)

구분	출석의원 (A, 명)	개회 시 재석의원(B, 명)	개회 시 재석률 (B/A, %)	산회 시 재석의원(C, 명)	산회 시 재석률 (C/A, %)
평균	265.6	198.4	67.5	126.7	42.5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151회의 본회의 중 출석률이 평균 89%보다 낮은 회의는 61회였다. 개회 시 재석의원 평균출석률 보다 낮은 회의는 64회였고, 산회 시 재석의원 평균출석률 보다 높은 회의는 67회였다.

【표 3】 제19대 국회본회의 출석률 특이 건

(2015.9.30. 기준)

내 용	회 / 전체회의
출석률이 평균(89%)보다 낮은 회의	61 / 151
개회 시 재석의원이 평균(66.5%)보다 낮은 회의	64 / 151
산회 시 재석의원이 평균(42.5%)보다 높은 회의	67 / 151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2.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출석률

1)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출석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제출, 심사 및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본회의 출석률보다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겸임위원회(국회운영, 여성가족, 정보)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출석률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86.8%의 출석률을 보였다. 환경노동위원회 86.4%, 국토교통위원회 85.4% 순이다. 반면, 출석률이 가장 낮은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위원회로 66.1%의 출석률이다. 출석률이 가장 높은 법사위와 가장 낮은 미방위의 출석률 차이는 20.7%다(【표 4】 참조).

【표 4】 제19대 국회 상임위별 출석현황¹⁾

(2015.9.30. 기준)

연 번	상임위	회의횟수	출 석		결 석					
			횟수	비율(%)	소계		무단결석		청가 및 출장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1	법제사법	72	62.5	86.8	9.5	13.2	6.9	9.6	2.6	3.6

1)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는 통폐합 되어 2015년 9월 30일 현재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하였음.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비공개로 제외됨

연 번	상임위	회의횟수	출 석		결 석					
			횟수	비율(%)	소계		무단결석		청가 및 출장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2	환경노동	48.5	41.9	86.4	6.6	13.6	5	10.3	1.6	3.3
3	국토교통	43.1	36.8	85.4	6.4	14.8	4.6	10.7	1.8	4.2
4	산업통상	69.7	59.1	84.8	10.6	15.2	8.1	11.6	2.5	3.6
5	교육문화체육	65.1	53.1	81.6	12	18.4	10.5	16.1	1.5	2.3
6	농림축산	54.9	44.4	80.9	10.5	19.1	9.1	16.6	1.4	2.6
7	보건복지	59.9	48.3	80.6	11.6	19.4	8.3	13.9	3.3	5.5
8	기획재정	42.5	34	80.0	8.5	20.0	7	16.5	1.5	3.5
9	국방	54.7	43.7	79.9	11	20.1	9.3	17.0	1.7	3.1
10	정무	64.8	51.2	79.0	13.6	21	11	17.0	2.6	4
11	안전행정	53.2	41.4	77.9	11.6	22.1	10.4	19.6	1.3	2.5
12	외교통일	75.6	58.3	77.1	17.3	22.9	13	17.2	4.3	5.7
13	미래창조과학	33	21.8	66.1	11.2	33.9	9.4	28.5	1.8	5.5
14	국회운영 (겸임)	17	14.1	82.9	2.9	17.1	2.3	13.5	0.6	3.5
15	여성가족 (겸임)	23.7	20.1	84.8	2.4	10.1	2.3	9.7	0.1	0.4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2)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선수별 출석률

선수가 높을수록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재선으로 평균 94.4회 회의 중 79.7회 참석해 84.4%의 출석률을 보였으며 무단 결석률은 12.8%다. 이어 초선 의원은 105.4회 회의 중 86.8회를 참석해 82.3%의 출석률을 보였으며 이중 무단결석은 13.6회로 12.9%를 보였다. 3선은 94.7회 중 75.3회 참석해 79.5%의 출석률, 무단결석은 15.1회로 16%의 비율이다. 4선은 98.1회 중 69.8회 참석하여 71.2%의 출석률이다.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인 것은 5선 이상 의원들로 출석해야 하는 회의 수도 선수 중 가장 적은 72.2회였으나 그 중 47.2회 참석하여, 65.3%의 출석률을 보였고, 무단결석도 31.8%로 평균 17.5%보다 14.3%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제19대 국회 상임위 선수별 평균출석률²⁾

(2015.9.30. 기준)

선수	출석 해야하는 회의수(회) ³⁾	출석		결석					
		횟수	비율(%)	소계		무단결석		청가 및 출장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재선(67)	94.4	79.7	84.4	14.3	15.1	12.1	12.8	2.2	2.3
초선(152)	105.4	86.8	82.3	17.8	16.9	13.6	12.9	4.1	3.9
3선(49)	94.7	75.3	79.5	19.4	20.5	15.1	16	4.3	4.5
4선(17)	98.1	69.8	71.2	28.2	28.8	21.6	22	6.7	6.8
5선 이상(13)	72.2	47.2	65.3	25.1	34.7	23	31.8	2.1	2.9
평균(298)	99.3	80.6	81.2	18.7	18.8	15	15.1	3.8	3.8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선수별 상임위 출석률을 정당별로 분석하면(정의당, 무소속 제외) 새정연의 재선의원이 8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새정연의 3선의원이 84%로 두 번째를 보였다. 선수별 상임위 출석률이 가장 낮은 것은 새누리당의 5선이상 의원들로 50.2%, 거의 절반 밖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제19대 국회 상임위 정당별·선수별 평균 출석률

(2015.9.30. 기준)

정당	선수	출석 해야 하는회의 수(회)	출석		결석					
			횟수	비율(%)	소계		무단결석		청가 및 출장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새누리당	재선(39)	92.5	76.8	83	15.8	17	13.6	14.7	2.2	2.4
	초선(85)	102.3	82.4	80.5	19	18.6	15.4	15	3.6	3.6
	3선(22)	83.9	61	72.8	22.8	27.2	18.9	22.5	3.9	4.7
	4선(8)	101.6	68.2	67.2	33.4	32.8	23.5	23.1	9.9	9.7
	5선이상(6)	71	35.7	50.2	35.3	49.8	33.7	47.4	1.7	2.3
	평균(160)	96.2	75.6	78.6	20.1	20.9	16.5	17.2	3.6	3.7
새정연	재선(27)	97.3	84.3	86.7	12	12.3	9.8	10.1	2.1	2.2
	3선(25)	103.4	86.8	84	12.2	11.8	12.2	11.8	4.3	4.2
	초선(62)	108.6	91.1	83.9	16.4	15.1	11.5	10.6	4.9	4.5

2) 정보위원회 회의 자료는 비공개이므로 제외됨

3) 개인별 상임위원회 활동횟수는 상이함

정당	선수	출석 해야 하는 회의 수(회)	출석		결석					
			횟수	비율(%)	소계		무단결석		청가 및 출장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4선(9)	94.9	71.2	75.1	23.7	24.9	19.9	21	3.8	4
	5선 이상(5)	84	63.6	75.7	20.4	24.3	17.4	20.4	3	3.6
	평균(128)	103.3	86.4	83.6	16.2	15.7	12.1	11.7	4	3.9
정의당	초선(4)	117.5	106	90.0	11.7	10.0	9.5	8.1	2.2	1.9
	재선(1)	91	70	76.9	21	23.1	17.0	18.7	4	4.4
	평균(5)	112.2	98.6	87.9	13.6	12.1	11	9.8	2.6	2.3
무소속	초선(1)	118	111	94.1	7	5.9	7	5.9	0	0
	5선(2)	46.5	40.5	87.1	6	12.9	5	10.8	1	2.2
	3선(2)	106	88	83	18	17.0	10	9.4	8	7.5
	평균(5)	84.6	73.6	87	11	13	7.4	8.7	3.6	4.3

※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3)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선출방식별 출석률

선출방식별 출석률을 비교하면(정의당과 무소속은 제외)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 의원으로 84.2%다. 새정연 지역구 의원은 1인 평균 101.8회 중 85.7회를 출석했고, 무단결석은 11.9회로 11.7%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로 1인 평균 105.6회 중 86.1회 출석하여 81.6%의 출석률을 보였고, 13.8회 무단결석하여 13.1% 비율이다.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들은 1인 평균 94.3회 중 73.5회를 출석해 78%로 출석률이 가장 낮았으며, 무단결석도 17.1회,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선출방식별 출석률

(2015.9.30. 기준)

정당	선출방식	출석 해야 하는 회의수(건)	출석		결석					
			횟수	비율(%)	소계		무단결석		청가 및 출장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새누리당	비례(27)	105.6	86.1	81.6	18	18.4	13.8	13.1	4	4.0
	지역(133)	94.3	73.5	78.0	20	22.0	17.1	18.1	3	3.6
	평균(160)	96.2	75.6	78.6	20.1	20.9	16.5	17.2	3.6	3.7
새	비례(21)	116	94.1	81.1	21	18.9	13.6	11.8	7	5.9

정당	선출방식	출석 해야 하는 회의수(건)	출석		결석					
			횟수	비율(%)	소계		무단결석		청가 및 출장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정연	지역(107)	101.8	85.7	84.2	7	5.9	11.9	11.7	0	0.0
	평균(128)	103.3	86.4	83.6	16.2	15.7	12.1	11.7	4	3.9
정의당	비례(4)	117.5	105.7	90.0	12	10.0	9.5	8.1	2	1.9
	지역(1)	91	70	76.9	21	23.1	17	18.7	4	4.4
	평균(5)	112.2	98.6	87.9	13.6	12.1	11	9.8	2.6	2.3
무속	평균(5)	84.6	73.6	87	11	13	7.4	8.7	3.6	4.3
지역(246)		97.4	78.8	80.9	18.1	19.1	14.7	15.0	3.5	3.7
비례(52)		108.5	89.1	82.1	18.2	17.9	13.2	12.1	5.0	4.7
평균(298)		99.3	80.6	81.2	18.7	18.8	15	15.1	3.8	3.8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정보위원회 제외

4)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개인별 출석현황

2012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67명의 의원(재보궐선거 등으로 당선된 의원 제외)의 개인별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 83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성호 의원이 108회 출석하여 출석률 10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98회 중 97회 출석,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96회 중 95회 출석으로 각각 99%의 출석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새누리당이 송영근 의원이 88회 중 87회 출석하여 98.9%의 출석률을 보였다(【표 8】 참조).

【표 8】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개인별 출석현황(상위 20)

(2015.9.30. 기준)

순위	의원명	소속정당	출석해야 하는 회의 수(건)	출석	
				건	비율(%)
1	강길부	새누리	83	83	100
1	정성호	새정치연합	108	108	100
3	김영주	새정치연합	98	97	99
3	이진복	새누리	96	95	99
5	송영근	새누리	88	87	98.9
6	류성걸	새누리	82	81	98.8

순위	의원명	소속정당	출석해야 하는 회의 수(건)	출석	
				건	비율(%)
7	이노근	새누리	76	75	98.7
8	안규백	새정치연합	100	98	98
9	김상희	새정치연합	88	86	97.7
10	나성린	새누리	82	80	97.6
11	박기춘	무소속	95	92	96.8
12	김한표	새누리	122	118	96.7
12	홍영표	새정치연합	91	88	96.7
14	심재권	새정치연합	82	79	96.3
15	주승용	새정치연합	78	75	96.2
16	강창일	새정치연합	99	95	96
17	박남춘	새정치연합	121	116	95.9
18	도종환	새정치연합	94	90	95.7
18	이찬열	새정치연합	116	111	95.7
20	안효대	새누리	90	86	95.6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정보위원회 제외.

반면, 출석률이 현저히 낮은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 69회 중 14회 출석으로 최저 출석률 20.3%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117회 중 24회 출석해 출석률 29.1%,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이 62회 중 25회 참석하여 40.3%,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125회 중 53회 출석해 42.4%,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67회 중 33회 출석해 49.3%의 출석률 순위를 보였다(【표 9】 참조). 출석율이 낮은 의원 중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 3명(황우여, 최경환, 이주영 의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표 9】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개인별 출석현황(하위 19위)

(2015.9.30. 기준)

순위	의원명	소속정당	출석해야 하는 회의 수(건)	출석	
				건	비율(%)
1	황우여	새누리	69	14	20.3%
2	정두언	새누리	117	34	29.1%
3	김한길	새정치연합	62	25	40.3%
4	최경환	새누리	125	53	42.4%
5	이군현	새누리	67	33	49.3%

순위	의원명	소속정당	출석해야 하는 회의 수(건)	출석	
				건	비율(%)
6	이한구	새누리	101	50	49.5%
7	이주영	새누리	98	53	54.1%
8	정병국	새누리	86	47	54.7%
9	박창식	새누리	146	81	55.5%
10	송광호	새누리	99	55	55.6%
11	김기식	새정치연합	106	62	58.5%
12	함진규	새누리	125	74	59.2%
13	문대성	새누리	120	73	60.8%
14	이재영(비)	새누리	149	91	61.1%
15	전병헌	새정치연합	134	82	61.2%
16	추미애	새정치연합	138	85	61.6%
17	진영	새누리	94	58	61.7%
18	윤영석	새누리	113	70	61.9%
19	김태원	새누리	87	54	62.1%

※출처: 국회의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정보위원회 제외

재보궐선거 및 비례승계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비례승계한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출석률 100%이며, 이어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39회 중 38회 출석해 97.4%로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제19대 국회 재보궐선거 및 비례승계 의원의 상임위 출석률

(2015.9.30. 기준)

순위	의원명	소속정당	출석해야 하는 회의 수(건)	출석		비고
				건	비율(%)	
1	신문식	새정치연합	5	5	100.0%	15.08.24비례승계
1	장정은	새누리	9	9	100.0%	15.08.10.비례승계
3	이종배	새누리	39	38	97.4%	14.07.30.
4	서기호	정의	133	124	93.2%	12.07.10.비례승계
5	이개호	새정치연합	42	39	92.9%	14.07.30.
6	나경원	새누리	22	20	90.9%	14.07.30.
7	이운룡	새누리	85	77	90.6%	12.12.11.비례승계

순위	의원명	소속정당	출석해야 하는 회의 수(건)	출석		비고
				건	비율(%)	
8	양창영	새누리	31	28	90.3%	14.06.16.비례승계
9	황인자	새누리	65	58	89.2%	13.12.16.비례승계
10	배덕광	새누리	29	25	86.2%	14.07.30.
11	안철수	새정치연합	72	62	86.1%	13.04.24
12	박맹우	새누리	30	25	83.3%	14.07.30.
12	홍철호	새누리	42	35	83.3%	14.07.30.
14	김용남	새누리	25	20	80.0%	14.07.30.
14	안상수	새누리	10	8	80.0%	15.04.29
16	신정훈	새정치연합	43	33	76.7%	14.07.30.
17	정용기	새누리	26	19	73.1%	14.07.30.
18	천정배	무소속	7	5	71.4%	15.04.29
19	박윤옥	새누리	81	57	70.4%	14.01.17.비례승계
20	박명재	새누리	42	29	69.0%	13.10.30.
20	박광온	새정치연합	29	20	69.0%	14.07.30.
22	오신환	새누리	6	4	66.7%	15.04.29
23	정미경	새누리	29	19	65.5%	14.07.30.
24	이정현	새누리	22	13	59.1%	14.07.30.
25	권은희	새정치연합	17	10	58.8%	14.07.30.
26	신상진	새누리	7	4	57.1%	15.04.29
27	서청원	새누리	53	29	54.7%	13.10.30.
28	유의동	새누리	35	19	54.3%	14.07.30.
29	김제식	새누리	81	43	53.1%	14.07.30.
30	이완구	새누리	117	55	47.0%	13.04.24
31	김무성	새누리	90	25	27.8%	13.04.24

※출처: 국회의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정보위원회 제외

5) 상임위 출석률: 제18대 VS 제19대 국회

제18대 국회 전체 상임위 출석률은 84.1%였으나 제19대 국회는 78.3%로 5.8% 낮게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제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84.4%로 같은 출석률을 보였다.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이 각각 78.9%와 80.7%, 무소속 등 기타 의원

11명이 87.4%로 출석률이 제일 높았다. 제19대 국회는 새누리당 출석률이 7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출석률 78.3%보다도 7.6% 낮은 수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1.1%, 정의당은 83.5%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상임위 출석률: 제18대 VS 제19대

제18대 국회 ⁴⁾			제19대 국회(2015.9.30. 기준) ⁵⁾		
구분	명	평균출석률(%)	구분	명	평균출석률(%)
한나라당	153	84.4	새누리당	160	70.7
민주당	76	84.4	새정치민주연합	128	81.1
자유선진당	17	78.9	정의당	5	83.5
통합진보당	5	80.7	무소속	5	88.1
기타	11	87.4			
소계	262	84.1	소계	298	78.3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정보위원회 제외

3. 제19대 국회 파행 및 공전 기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별도로 제19대 국회도 일정대로 개원하지 못했다. 제18대 국회에 비하면 파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지만 원구성이 지연되어 국회가 제때 개원하지 못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역대 국회가 개원 시 파행을 겪었다는 것은 상습적인 국회법 위반이며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표 12】 참조).

【표 12】 역대 국회 개원 시 파행기간⁶⁾

회 차	개원 시 파행 일수
15대 국회	39일
16대 국회	3일

4) 18대 국회 자료는 정희옥(2012) 논문 인용.

5)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정보위원회 제외

6)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의 국회 개원 시 파행 기간은 정희옥(2012)의 논문 인용하였고, 제19대 국회 파행 일수는 바른사회에서 자체 조사하였음

17대 국회	30일
18대 국회	83일
19대 국회	25일

한편 국회가 개원하고 회기 중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공전 기간은 약 132일이다. 즉, 제19대 국회는 개원부터 현재(2015.9.30.)까지 약 4개월 동안 공전한 셈이다. 317, 327 임시회 때는 각각 29일간 국회가 공전하였고, 310 임시회 때는 약 27일을 공전했다. 국회가 공전되어도 의원의 세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표 13】 참조).

【표 13】 제19대 국회 공전기간⁷⁾

회 기	구 분	기 간		공 전 기 간	비 고
		시 작	종 료		
308	임시회	2012-06-05	2012-07-04	25일	개원국회 / 7.2 원구성
310	임시회	2012-08-04	2012-08-31	27일	
317	임시회	2013-07-08	2013-08-06	29일	
319	임시회	2013-08-19	2013-09-01	13일	
327	임시회	2014-07-21	2014-08-19	29일	
328	임시회	2014-08-22	2014-08-31	9일	
계				132일	

Ⅲ 맺는 말: 제19대 국회 입법활동 종합평가(2)

7) 개원국회에서 원구성이 지연된 기간과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회기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회기를 기준으로 함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의 19대 국회 입법활동 종합평가(2)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9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89%로 나타났다. 평균출석률과 달리 개회 시에는 75.6%의 의원만이 재석해 있었고, 산회 시에는 47.6%, 즉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의원 절반정도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둘째, 상임위 출석률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인 평균 72회 회의 중 62.5회에 참석해 86.8%의 출석률을 보였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평균 33회 회의 중 21.8회 참석하여 가장 낮은 출석률인 66.1%다.

셋째, 선수별 출석률은 재선의원이 84.3%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선수가 높아질수록 출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선 이상 의원들의 출석률은 65.3%로 가장 낮았다.

넷째, 선수별 상임위 출석률을 정당별로 분석하면(정의당, 무소속 제외) 새정연 재선이 86.7%, 새정연 3선이 84%로 나란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했다. 한편 선수별 상임위 출석률이 가장 낮은 그룹은 새누리당 5선으로 출석률 50.2%다. 선출방식별 상임위 출석률은(정의당과 무소속은 제외)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 의원으로 8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로 81.6%의 출석률을 보였다.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들은 1인 평균 94.3회 중 73.5회를 출석해 출석률 78%로 가장 낮았다.

다섯째, 출석률과 별도로 제19대 국회도 개원 시 25일 동안의 파행기간을 겪었다. 이는 역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위반이다. 또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지만 여야대립 등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공전한 기간은 약 132일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중에 자리를 지키며 표결에 참여해야 하고, 공전 및 파행일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즉, 의원들도 국회법 등 관련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